

‘참된 용기’ 보여준 미얀마 승려들

e 해외불교칼럼

나는 최근 미얀마 사태를 지켜보며 불법에는 다른 믿음이나 삶터에는 없는 특별한 가능성이 존재함을 새삼 깨닫는다. 헛되고 거친 폭력이 더욱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마치 물리학자 가설과 그에 대한 입증의 공식과도 같다. 이 악순환에 대한 방편은 진정한 용기와 인간애만, 미얀마 군부에 대한 승려들의 비폭력저항이 곧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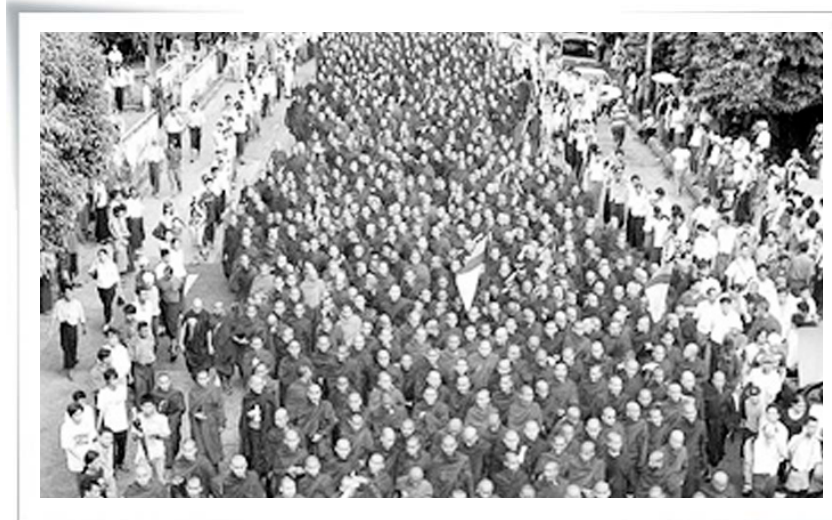
우리는 현지 승가에 대한 무한한 동정과 아울러 사태해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차별적 동족살육의 총구는 승려들 물론 어린이와 부녀자들마저 겨냥하고 있다.

혹시 우리는 여기 예일 캠퍼스에서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는 참극이 머나먼 먼 세상에서 벌어지는 양 그저 수수방관하는 건 아닐까? 또한 승려들의 저항이 영적 교화에 합당하니 어떠한 말잔치나 벌이는 건 아닌지? 나 역시 명쾌한 답변할 입장은 못 되나, 그들의 행동이 시종일관 불교의 보편타당성에 준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붓다는 참된 질문을 허락하고 대답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 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문화에서는 대체로 대답을 이미 아는 질문, 곧 처방된 질문만을 한다. 대답을 흐릿하면 위험분자로 몰리기 때문이다. 또 차마 참된 질문을 할 용기가 없으면 아예 하지 않는다.

예일 학우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뭘 할 것인가? 매우 좋은 질문이다. 우선 그러한 문제제가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뭘 할지 확신을 못할 경우,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가만있는 게 낫다.

항의를 하고자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지 줄곧 자문해야 한다. 예컨대,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선가? 아니면 참으로 남에게 도움



미얀마 군부폭력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승려들.

이 되고자 하는가? 바로 거기서 불교가 지닌 진실성과 현실성의 요체가 극명히 드러난다.

우리 예일인들은 미얀마 승려들이 보여준 상대배려와 폭력을 지켜가며 참된 불자다운 인간애를 나눌 것이다. 이는 어떠한 보복행위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미얀마 군부의 불의를 단순히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의 반응이 널리 경청, 활용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원력을 모아 현지 승려들에게 그들이 홀로가 아니며 우리와 굳은 연대감을 지녔음을 알려야 한다.

우리 예일인들이 그들의 문제제기에 명확한 연대감을 보인다면 세계인들의 이목 역시 거기에 집중될 것이다. 남아공의 인종분리주의 정권에 항의하던 대학 시절, 나 역시 그 운동이 자기만족을 위한 것인지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지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모잠비크의 아프리카민족회의 ANC 광명본부로부터 감사서신을 받고서 그들이 우리의 항의와 구속 사태를 이미 알고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미얀

마 참사에 대한 우리의 항의가 마스크를 의식한 캠퍼스 내의 미적대는 웅성거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일 학우와 교수진들의 문제제기가 세계적 연대감으로 이어지고, 미얀마 군부는 물론 승단에도 확실히 전달되어야 한다. 오랜 무인 왕궁가문의 아들이며 손자였던 붓다는 자신도 무사료 자랐다.

그러면 그 성장과정 중 과연 어떠한 체험이 그를 변화시켰을까? 그가 주장했던 비폭력은 바로 그런 폭력의 음울한 저변을 개탄한 결과가 아닐까? 이는 흔한 일은 아니나, 어쨌든 폭력이 적어도 붓다에게는 크게 축복된 바이어로 작용한 듯하다. 이것이 가혹한 폭력에 당면한 미얀마의 도반들에게 새삼 일깨워주고픈 역사적 인물로서 붓다의 참 모습이다.

출처: 예일 해럴드 / 번역: 성후성님

필자 브루스 블레어는 예일대 출신으로 뉴헤이븐 선원장을 거쳐 현 예일대 최초 지도법사로 활동 중.

라오스의 '분옥판사 축제' 속으로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안거 해제'의 날

10월 25일 라오스 투앙프라방.

안거 해제를 하루 앞둔 이날 스님들은 메콩강에 띄울 장엄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도시의 사찰들에는 스님들이 직접 만든 등과 장엄물들이 화려하게 밝혀져 있다. 안거가 끝나는 것을 기념해 열리는 '분 옥 판사(Bun Ok Phansa) 축제(사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95% 이상이 소승불교 신자인 라오스는 그 축제 동안 스님들은 물론 재가자들도 등을 만들어 메콩강에 띄우며 소원을 빌고, 마을 대항 전국 보트대회가 열려 전국이 축제 분위기다.

라오스의 안거는 일 년에 한번으로 음력 7월 보름부터 3개월이다. 안거 동안 스님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한곳에서 수행하며 재가자들은 5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 성생활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에서 육망을 절제하는 기간으로 승·재가 모두에게 안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거 해제일에 열리는 분 옥 판사 축제의 의미가 커지는 이유다.

이처럼 라오스불교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4월 열리는 분 삐 마이(Bun Pi Mai) 축제, 11월에 열리는 분 텃 투앙(Bun That Luang) 축제가 모두 사찰과 탑을 중심으로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신년, 집안 대소사, 관혼상제 등 매일 네 차례의 붓다데이(Buddha Day)마다 절을 찾아 공양물을 올리거나 스님을 초청해 '바시'라는 축원의식을 행한다. 매일 아침 사찰 주변에서 열리는 딱밧(타발)을 위해 동이 뜨기 전 일어나 거리에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남자라면 일생에 한번 출가 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년 동안 출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된다. 출가한 승려에 대한 존경심은 각별하다.

특히 화를 내는 것은 라오스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직장 상사가 화를 내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을 정도로 화 내는 사람은 인격이 될 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그만큼 욕망과 화를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물질의 추구보다 욕망을 줄이며 함께 행복해지는 나눔을 삶의 지표로 삼는다.

5년 임기의 종정이 불교의 최고 지도자지만 현재는 얼마 전 임직해 공석이다. 스님들은 승가대학에서 불교교리를 철저히 교육받으며 요즘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찰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어, 일본어 등을 배우는 광경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스님들의 입과는 새벽 기도, 타발, 예불, 승가대학, 좌선, 자유시간으로 채워진다. 비엔티안에서의 왓(탑)의 절이라는 뜻에 따라 만년 주지 타원 스님은 '선행을 행하고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며 "사성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평화에 머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투앙프라방, 수도 비엔티안, 방비엔 등에는 불교유적들이 넘쳐난다.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시되며 국가 상징인 왓 텃 투앙은 라오스인들이 일생 동안 꼭 한번 가보길 꿈꾸는 곳이며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가장 오래된 사찰 왓 씨썬, 태국에 있는 에메랄드 붓다가 원래 봉안돼 있었던 왓 호파깨우, 투앙 분브라 푸리앗이라는 조각가가 조성한 붓다파크, 경주 남산처럼 산 전체가 불상으로 꾸며진 푸시안 등 불교성지가 도심에 인접해 신행 공간이 되고 있다.

라오스인들의 삶속에 녹아 있는 부처님 가르침 때문일까? 라오스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50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지만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욕망을 내려놓고 소욕지족하는 라오스인들의 마음자리가 거리 곳곳에서 환한 미소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라오스=천미희 객원기자

英 조니 월킨슨, 불교체험 기고

영국의 럭비 영웅 조니 월킨슨은 지난달 런던 주재 타임지지에 보면 기고문을 통해 2007년 럭비 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던 중 뜻밖에 중상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불교와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고 술회했다.

타임지는 대영제국훈장의 수훈자인 그가 아직 완전한 불자는 못되나 불교의 감화로 인해 인생을 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환상에서 휴식과 수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그의 체험을 인용 보도했다.

2003년 럭비 월드컵 결승전에서 시합종료 직

전 드롭 킥을 성공시켜 럭비의 종주국인 영국을 영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킨슨은 불교를 통해 자신이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타임즈 영국 판

MIT 불교학개회 'TBTP' 실시

지난주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프라즈노파야 불교학개회는 국제 프라즈노파야 재단 인도 지부와 공동으로 2008년 1월부터 걸쳐 2차 및 예방프로젝트(TBTP)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 조정이사인 스코트 케네디 박사의 세부시행 안에 의하면, 인도의 극빈농촌지역 중 하나인 비하르의 보건요원들을 대상으로 지능형 투약기 uBox 및 휴대전화 연결형 의료기록 프로그램 uPhone의 사용법 등을 교육할 이 프로젝트의 모든 기술과 기자재는 동 대학 불교학회가 개발, 무상 제공하며, 내년 5월 이동교육 캠퍼스에서 실시될 제2차 교육을 통해 총 3000여 명의 잠재결핵환자를 치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MIT 불교학개회는 고성능 저가양수기를 신규 개발, 일부 저개발국가에 자원봉사학생들을 파견해 무상으로 설치해준바 있다.

MIT 학생부교지



Where is the dead man going now?

— 저 죽은 육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고?

A Corpse on a picnic

For some people saying that they do not meditate because they are simply too busy, the Dalai Lama told the following story: A monk kept promising his disciples that he would take them on a picnic, but was always too busy to keep his words. One day they saw a funeral procession carrying a corpse. And the monk rather solemnly asked them, "Where is the dead man going now?" They retorted bluntly, "On a picnic."

소풍가는 승장

그저 너무 바빠서 참선을 못한다는 이들에게 달라이 라마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소풍을 데리고 가겠다고 졸근 말만하고선 늘 바빠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어느 날 그들은 승장을 들쳐 매고 가는 장의행렬을 보게 됐다. 스님이 제자들에게 자못 근엄하게 물었다. "저 죽은 육신은 사망 어디로 가고 있는고?" 제자들이 통명스레 내뱉었다. "소풍 가지요." 변안 성후성님

장례에서 이장, 택일, 제사까지
확 트이는風水
꼭 잡히는地理

풍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책!
이 한 권으로 풍수는 끝난다!!

제 1장 풍수風水의 의의意義
제 2장 풍수의 기초 이론基礎理論
제 3장 용세론龍勢論
제 4장 혈장론穴場論
제 5장 사격론砂格論
제 6장 수세론水勢論
제 7장 좌향론坐向論
제 8장 형국론形局論
제 9장 구중나경사용법九層羅經使用法
제 10장 발복發福추산법推算法
제 11장 장택론葬擇論

저자 정판성 박사

쉬운 문장, 많은 그림, 현대적 용어로 설명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풍수 책!

사람들이 풍수를 배워서 명당에 묘를 쓰고 집터를 잡아 행운을 얻게 하는 잡술서가 아닌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이 책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설명을 했고 많은 이분들을 제시했으므로 별도로 다른 풍수서적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랄 뿐이다.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신목판 75쪽
값 30,000원

무료개방체험
황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옹맹정진 기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 본 도량에 황토폴집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층에서 솟는 맥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치세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약사여래 기도도량 불토사
종무소 전화 : 033)343-0103

부처님 만나러 고고생!!!
“부처님과 함께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제 4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포교사,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40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습회는 전통과 불교문화가 함께하는 강습회로 등 만들기, 전래놀이, 불교생태교육 등 지도자분들이 직접 체험하시어 즐거운 겨울불교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하시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청소년 겨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일 시: 불기 2551(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2.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교통편 안내]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0분
3. 강습 프로그램
• 재활용품을 활용한 등 만들기 - 전영일 공방 • 잘 놀아야 철이 들지(전래놀이) - 김중만(전래놀이 연구가)
• 전통·불교문화와 함께하는 불교생태교육 - 불교환경연대 • 다함께 부르는 부처님 노래와 율동 - 교육연수국
4. 준 비 물: 필기도구, 재활용품(나뭇가지, 페트병)
5. 참 가 비

| 구 분 | 일 반 | 전문지도자/교사대학 | 도서벽지 및 군종 | 비 고 |
|-----|---------|------------|-----------|---|
| 금 액 | 30,000원 | 20,000원 | 15,000원 | 접수된 참가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 교재비 및 재료비 포함 * |

* 입금계좌
국민 006001-04-163577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접 수: 선착순 100명 전화 및 인터넷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 - www.burec.org
7. 문 의: ☎ 02)738-7860 / Fax 02)738-7863(본회 사무국)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 목